

아시아 개도국, 2003년에도 성장세 유지 전망

ADB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증호흡기증후군(SARS)로 인한 타격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41개국들은 내수 및 수출호조를 바탕으로 5.3%선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.

□ 내수기반 등에 힘입어 성장세 지속

- 아시아개발은행(ADB)은 최근 발표한 2003년 아시아경제전망에서 아시아가 미국, 일본, EU 등 국가들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며 2004년에 가서는 세계경제 회복과 맞물려 5.9%로 성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
- 아태지역 국가들의 성장 원동력은 견실한 내수기반, 수출호조, 정책적 배려 그리고 효과적인 재정정책 등이며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.

□ SARS로 인한 타격은 극복할 수 있을 듯

- 이들 지역 국가들은 제조업 부문 침체 가능성, SARS의 관광 및 상담추진 등에 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불가피함.
- 그러나 동 지역은 이러한 난관속에서도 강력한 펀더멘털, 높은 외환보유고, 낮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SARS에 의한 타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.

□ 지역별 전망

- 동아시아 지역은 작년의 6.5%성장에서 금년에는 한국 등에서의 내수성장 둔화로 5.6%로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임. 중국은 내륙지방의 성장둔화로 SARS로 인한 영향으로 소폭 성장이 둔화, 7%에 이를 것으로 보이나 홍콩

은 2%로 성장이 둔화될 전망.

- 동남아 지역 국가들은 작년에는 내수증가 및 수출호조로 4.1%의 성장을 보였으며 금년에는 SARS로 인한 타격으로 당초예상보다 낮은 4%의 성장에 예상되며 특히 SARS의 영향이 가장 큰 싱가포르의 경우는 2.3%로 부진할 것으로 보이나 내년에는 4.8%로 성장이 회복될 듯
- 남아시아 지역은 작년의 4.2%에서 금년에는 5.7%로 성장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경제의 3/4을 차지하는 인도의 성장의 영향이 크며 내년에는 6.1%로 성장이 확대될 듯. 이러한 배경에는 경제자유화 지속, 민간부문 성장, 노동생산성 향상 등으로 인한 기업활동 여건 개선 및 투자 활성화를 지적할 수 있음.
- 중앙아시아 지역은 5.8%로 성장이 소폭 둔화될 전망이며 우즈벡 및 타지키스탄의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키르기즈의 성장은 확대될 듯. 태평양 국가들은 원자재 가격회복과 정치불안 해소로 성장이 작년의 0.9%에서 2.4%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.

| | 2002 | 2003 | 2004 |
|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아시아 개도국 전체 | 5.7 | 5.3 | 5.9 |
| 동아시아 | 6.5 | 5.6 | 6.2 |
| 동남아시아 | 4.1 | 4.0 | 4.8 |
| 남아시아 | 4.2 | 5.7 | 6.1 |
| 중앙아시아 | 7.7 | 5.8 | 5.8 |
| 대양주 | 0.9 | 2.4 | 2.5 |

선임연구원 김종호(3779-6674)
E-mail: jhokim@koreaexim.go.kr